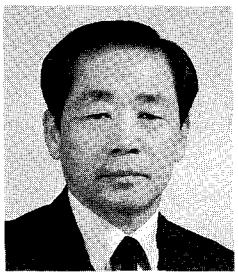
2001년 양계업 새해설계

닭 질병 방역의 새로운 인식전환



박 근 식
(본회 위생방역대책위원장/농학박사)

1. 서 언

새 천년의 첫 해도 지나가고 두 번째의 해를 맞이하면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극성을 부리던 닭 질병도 지나간 묵은해에 묻고 병 없는 양계를 맞는 새 해가 되기를 양계농가와 함께 기원하는 바이다.

오래전 미국의 소설 가운데 "닭"이란 제목으로 당시 정치사회를 풍자한 소설을 읽은 적이 있다. 내용을 요약하면 어떤 시골의 젊은 청년이 따뜻한 봄철에 산기슭을 지나다가 양지바른 곳에서 봄빛에 노곤하여 쉬면서 장래를 설계하다가 "그래 한 쌍의 닭을 사다가 키워서 알을 받아 병아리를 깨여 양계를 시작하자"라고 결론을 내려, 바로 실행에 옮겼다. 몇 차례의 모계부화를 통해 성계수수가 해를 거듭하면서 500마리, 1,000마리로 규모가 커지고 소득도 높아져 삶에 흥미도 생기고, 그동안 무료했던 삶에서 해방된 기쁨도 누리면서, 주변에서도 선망의 대상까지 되었다. 그러나 어느 날 아침에 양계장에 도착한 그는 놀랐다. 닭이 밤사이에 모두가 죽어 있지 않는가! 청천벽력이라 가슴이 터질 듯 안타까움을 달랠 수 없는 심정과 분노에 차 내 뱉은 소리는 "세상에 정치하는 X의 말은 믿을지라도 양계는 믿지 못하겠다"고 절규하는 내용이었다. 그 당시 미국정치가들의 언행이 일치하지 않음을 꼬집는 풍자 소설 이었지만 필자는 당시 한국 양계를 이 땅에 하나의 산업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기울이는 젊을 때라 마음 언짢게 생각했으나 한 평생을 양계와 더불어 살아 온 나로서 지금은 예사롭지 않게 느껴진다.

오늘날 이 한 토막의 풍자가 가슴에 와 닿는 듯 절실하게 느껴지는 까닭은 한국의 양계산업이 이 젊은 양계인 같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우리 세대에서 피 땀흘려 이룩한 양계산업이 한국농업의 기간(基幹)적 산업으로, 금후에도 국민의 식생활을 충실하게 도모하는 중요한 역할을 기대하는 이 때에 세계 각 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질병이 이 좁은 땅덩어리에 만연하여 한국 양계인들은 큰 시련을 맞고 있다. 그러나 본인은 우리 국민의 근면성

과 지혜 그리고 항상 위기에 강한 근성이 있기에 기필코 이 시련을 극복하리라고 믿고 또 지난해 11월 15일에 농림부에서 『닭뉴캣슬병 근절 강화 대책 안(위생51580-10619호)』을 발표한 적이 있었다. 이를 기회로 하여 한국양계인의 긍지를 새롭게 정립하여 슬기롭게 대처하는 양계인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한 인식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한국 양계인에게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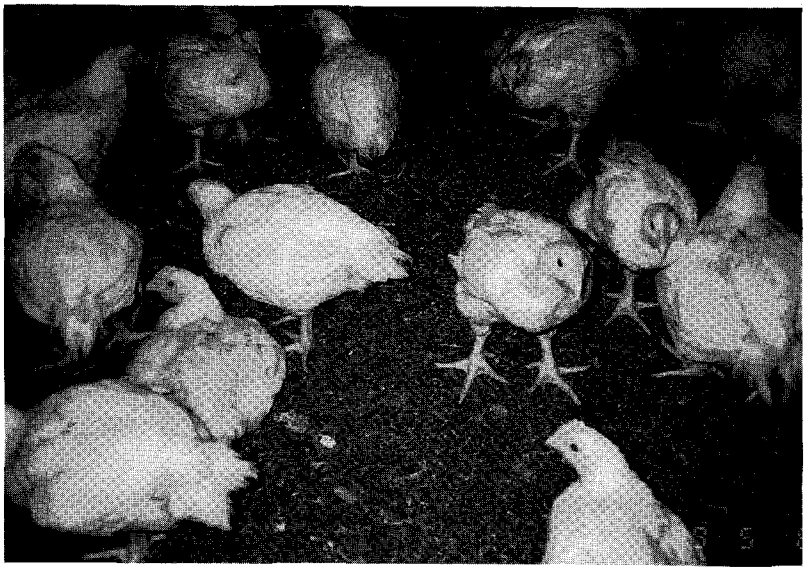
2. 신앙적인 무장

우리는 큰 일을 앞에 두고 이를 결행 할 때, 특히 특수집단에 의해서 결행 할 때는 정신적으로 무장하여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정신적인 공동체가 형성되었을 때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다. 여기에는 종교적이거나 철학적인 바탕이 있으면 더욱 효과적이다. 성경말씀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날에는 빛을, 둘째 날에는 궁창(穹蒼:지구의 온실효과를 가능케 하는 대기권), 셋째 날에는 바다와 땅, 넷째 날에는 사시와 일자(연한), 다섯째 날에는 조류와 어류, 여섯째 날에는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기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창1:23) 이 말씀 중에는 모든 생물을 인간이 다스리라고 명하셨다. 인간에게 큰 권한과 역할을 감당하도록 명령하셨다. 닭을 포함한 모든 생물의 질병관리도 인간에게 명령하셨음은 명백하다. 따라서 기독교적 신앙으로 보면 닭 질병관리를 소홀하게 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결과로서 죄를 짓는 일이 된다. 따라서 우리는 닭의 건강을 돌보며 질병을 예방하는 임무가 부여되고 있음은 성서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양계산업에 대한 양계인의 인식 전환

- 양계산업의 필연성과 경제 및 식품의 건전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 -

우리나라 축산은 외국 의존형 동물 농업이다. 특히, 양계산업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주 생산 원료인 사료와 씨닭은 거의 100%를 도입하여 일부의 기자재와 관리인력을 투입하는 사업임을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 양계는 다른 축종에 비하여 사료효율이 가장 높고 더욱이 닭고기나 계란은 다른 축산 식품에 비하여 저지방 고단백 식품으로 영양이 가장 풍부함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건전한 식품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사료를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는 산업임을 감안한다면 국가적으로 어느 산업에 치중하는 것이 국익을 위해 도움이 될 것인지 쉽게 판단 할 수 있도록 정책 입안자나 소비자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이론적인 무장을 양계인들이 갖추는 전략이 무엇보다 급선무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계 또는 사회 활동가와 연합하는데 인색하지 않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특히 식량 자급율이 낮아 27% 밖에 되지 못하는 긴박한 상황에서는 더욱 절실한 문제이다. 이러한 상황 아래 국내 축산 현황을 생산 총



액면에서의 구성 비율을 보면 사료 요구 율이 3:1인 양돈이 33.8%로 가장 높고, 5:1인 한우는 22.4%, 젖소가 18.3%, 사료 요구 율이 2:1인 양계는 17.9% 이며 이는 해를 거듭할수록 그 격차는 심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선진국과는 반대 현상으로 이러한 결과는 양계인들의 기업 의식과 자기직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되어, 오로지 생업의 수단으로만 인식한 결과이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저렴한 생산가격으로 가장 훌륭한 동물성 단백 식품을 국민에게 제공한다는 성스러운 직업인의 자부심을 갖고 소비자에게 다가서는 용감한 양계인임을 만천하에 천명하는 자세로 바꾸어졌을 때 양계입국(養鷄立國)의 주체가 될 수 있다.

4. 농업 황금율로 정신적인 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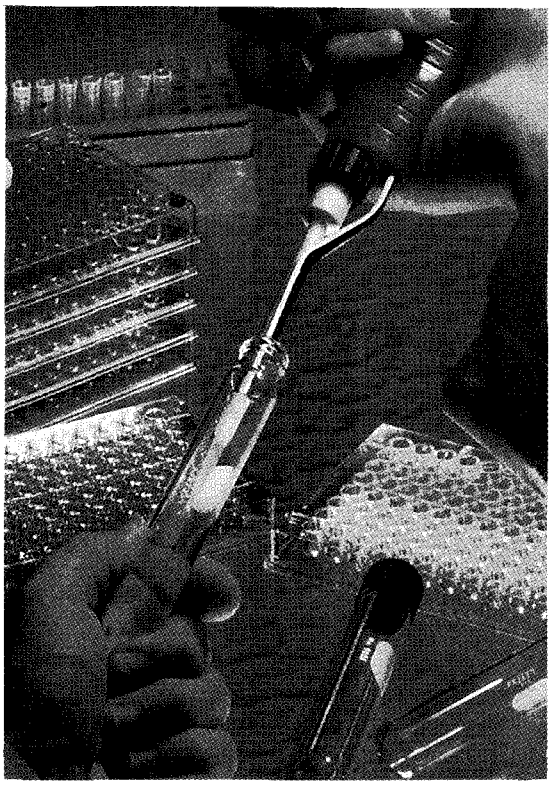
당대의 철인 잔쟈크룻소는『농업을 다른 나라에 의존하게 되면 나라와 독립을 잃게된다. 외국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며 독립을 유지하는 유일한 수단은 농업이다』라고 말했다. 이는 오늘날까지 양계를 포함한 농업의 황금율(黃金律: golden rule)로 이어지고 있다. 벨기에의 농민인 제롬 밋첼은『농업을 지킨다는 것은 자유를 지키는 것으로 이는 바로 나라를 지키는 일이다. 따라서 오늘도 이러한 심정으로 밭을 간다』라고 절규하였다. 그 외 문호 톨스토이, 영국의 경제학자 슈밑, 그리고 국제연합기구의 행동강령 등에 농업에 관련된 철학적이며 농업인을 위한 정신적인 지주가 되는 글들이 많이 있다. 우리 양계인들은 보다 차원 높은 정신적인 무장으로 국민식량 부분을 자급하겠다는 굳은 의지로 소비자와 연대하여 우리의 당면과제인 질병과의 성스러운 전쟁에 임하는 자세이어야 한다. 최신의 예방기술을 이용, 최선을 다하여 국민으로부터 진정한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유지하는 의지로 비추어질 때 이 나라 양계산업이 미래를 보장받는 산업으로 발전될 것임을 확신한다.

5. 질병은 재앙이 아니고 인재(人災)

- 질병의 예방관리는 적극적인 생산적 경제활동이다. -

약 3,440년 전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의 인

도 하에 애굽의 포로생활에서 출애굽 시에 애굽의 완악 함에 하나님께서 내린 아홉 가지 재앙 중에 다섯 번째의 재앙으로 내린 것이 가축의 질병이다. 고대에서는 사람이나 동물이 악역(惡疫)에 걸려 죽는 것은 신의 저주라 하였다. 그 후 14세기에 유럽에서 발생한 천연두, 발진티푸스가 발생하였을 때 유행에 의해서 일어나는 전염병임을 받아들여졌고 17세기에 발견한 현미경에 의해서 감염병의 병원체를 확인할 수 있었고 19세기 후반에 와서 파스텔의 가금콜레라가 병원체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염병임을 밝혀 낸 것을 포함해서 현재까지 밝혀진 닭의 중요 전염병은 35종인데 우리나라에서는 1905년~1950년까지는 불과 5종 밖에 되지 않았던 전염병이 1960년대에 5종, 1970년대에 6종, 1980년대에 7종, 1990년대에 10종 씩 해마다 추가되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세계에서 발생되는 모든 닭전염병이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도 발생하고 있음을 우리는 직시하고 인정해야 한다. 국제적으로는 닭의 중요 악성 전염병을 리스트 A와 리스트 B로 구분하여 국제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리스트 A에 속하는 것은 뉴캣슬병과 가금인플루엔자 두가지인데 국내에서 최근에 발생 확인된 가금인플루엔자는 비록 약독이라 하나 그 피해의 정도를 보면 그냥 묵과 할 수 없는 질병이고, 리스트 B에 속하는 13종 중 오리 바이러스 간염과 가금 클람미디오증 두가지를 제외 한 11종이 우리나라에서 발생 경험한 전염병이다. 최근에 와서 신종 병원체에 의한 신흥(新興) 또는 새로운 전염병(emerging infectious disease)과 과거에 발생하였던 질병이 다시 창궐하여 발생하는 재흥(再興)전염병(reemerging infectious disease)이 번갈아 가면서 양계산업을 강타하고 있는 현실은 한국 양계산업의 존폐가 달린 심각한 당면 문제로서 년간 직접 피해액이 양계 총 생산액 1조 4,000억 원의 25%에 해당하는 3,550억 원이다. 여기에 질병으로 인한 산물의 품질저하로 상품화 효율의 저하와 생산물의 수급 차질에 의한 소비자의 부담 손실까지 포함한다면 연간 4,000억 원을 족히 넘을 것이다. 이와 같은 사항이 국가경제와 시민경제 미치는 손실이 양계인의 관리 소홀로 일어난다면 마땅히 우리들의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따라서 양계산업의 국내외의 경쟁은 질병관리의 성공여부에 달려 있어 질병관리는 적극적인 생산경



제활동으로 인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6. 생산자로서 공동체에 모두 참여, 올바른 직업윤리관을 확립하고 지키는 일

고도산업사회에서의 양계산업을 그 사회가 바라는 산업으로 유지 발전시키려면 그 산업을 대표하는 일정한 조직을 가진 집합체가 필요하다. 이러한 목적으로 양계산업을 대표하는 집합체가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는 그들이 추구하는 이념과 목표를 위해서 지켜야 할 윤리관을 정립(양계인의 직업 윤리 강령 제정)하여 온 세상에 선포하고 모든 양계인이 이 기치아래 모여야 한다.

필자는 양계산업 분야의 유일한 생산자의 대표 단체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을 조사한바. 1999년을 기준으로 년 회비 72,000원의 일반회원이 141명, 그리고 년 회비 30,000원의 지부 및 분회회원이 1,040명, 년 회비 30만원의 단체회원이 3개 단체로 전국 양계농가의 0.56%, 10,000수 이상 사육농가의 37.8%로 너무나 참여도가 낮음을 알고 놀랐다.

방역의 전략적 차원에서 보면 방역의 대상 질병에 따라 다르겠으나 뉴캣슬병의 경우에는 뉴캣슬병에 감수성이 있는 모든 동물이 방역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오리, 메추리, 꿩 등을 사육하는 농장도 포함 되어야 하나 여러 가지 정서면을 고려하여 생활을 양계에 의존하는 10,000수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 3,120호(사육 수수 : 89,485,437수, 88.9%)는 전원이 양계협회에 가입, 양계를 통한 사회경제활동은 물론 방역의 주체로서 참여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방역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모든 상황이 현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 중심이 되어야 하므로 지방 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함으로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중앙 정부의 방침도 각 시도별로 양계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지역에서의 양계분야의 지원은 고려의 대상이 되는 분위기이다. 따라서 모처럼 중앙 정부에서 뉴캣슬병 근절 강화 대책을 의욕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의지가 발표를 기회를 삼아 양계협회에서도 각 시도별로 조직을 확대 재정비 강화하여 뉴캣슬병을 포함한 생산성 질병을 함께 대처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양계인 전원이 참여하도록 하자.

7. 국가방역, 자주방역, 자가방역으로 구분, 역할 분담

방역주체별로 방역 대상을 선정하여 정부는 법정 전염병을 중심으로 박멸계획의 수립과 시행, 국제방역을 담당하고 자주방역은 조직 주체인 협회나 조합 또는 계열화 주체업체가 담당하되 예방업무의 기본이 되는 종계 및 부화업의 위생 규제 및 건강관리계획수립과 수행을 정부의 적절한 지원아래 자기부담으로 수행하고 여타 부분은 생산자 스스로가 지역 가금질병 전문개업 수의사와 협력하여 농장의 계군의 건강과 환경관리 및 상재질병(常在疾病)의 관리를 담당하는 역할을 분담할 때 소기의 목적을 단시간 내에 달성하여 질병 발생의 공포에서 해방되어 양계인은 경영에 몰두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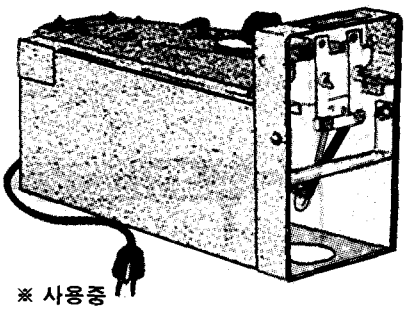
8. 닭방역 사령탑의 구축과 준법정신 고취로 축산 선도 산업으로 육성

양계인들이 산업적 차원에서 비젼을 제시하고 이들의 실행을 위하여 열정을 쏟을 때 그 성과를 기대할 수있다. 이 과정에서 공감대의 형성이 중요하다. 공감대는 여론에 의해서 형성되며 여론과 의사의 결정은 민주적이어야 한다. 이 여론의 형성은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란 속담과 같이 닭 방역의 사령탑을 구축하여 여기에 집약되고 채택된 실천 강령이나 방역의 제반 규칙은 비록 개인의 고통이 따를지라도 준수하는 선량하고 성숙한 양계시민이 되어야 한다. 지금의 양계협회를 강력한 방역사업의 추진축으로하여 강력한 사령탑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이미 협회는 양계산업의 현안 과제인 방역과 위생을 위한 위생방역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정부에서도 첫 단계로 늦게나마 뉴캣슬병 근절 강화대책 안이 마련하여 전례 없는 닭질병 방역의 의지를 표방하고 있는 시점에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뭉쳐 뉴캣슬병만 아니라 모든 닭병을 퇴치하는 기회로 삼아, 닭고기와 계란의 생산 원가를 절감하고 생산물의 품질을 높여 양계농가의 안정된 소득향상을 통해 위기에 처한 양계산업을 재 중흥산업으로 육성하는 마지막 승부수로 인식하여 과거의 선도(先導)축산산업의 위치를 회복하도록 다같이 노력하자. 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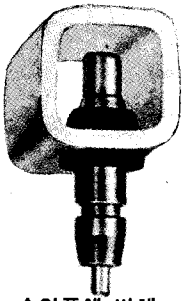
보령산업은
최고의 품질을 위해 정성을 다하여 제작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저렴한 가격 ◉국산품 입니다.

부리절단기(국산품)



※ 사용중 고장난 제품을 수리해 드립니다.

닙 플



수입품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

보 령 산 업 개 발
사무실 : 서울시 성동구 성수2가 331-27
전 화 : (02)461-7887 (주 • 야)